

숭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제64회 가을 정기공연

바
라
보
다 닮
아
가
다

기획 서정우 작·연출 김희진

일시 : 2001년 9월 6,7일 오후 6시

8일 오후 2시, 6시

장소 : 숭실대학교 대학극장(1공학관 3층)

주최 : 숭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

모시는 글

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계절입니다.

안녕하십니까?

지난 여름내내 땀 흘리며, 맷은 결실이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.

모두가 하나가 되어 흘린 땀만큼, 각자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얻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이번 작품을 위해 수고해 주신 숭대극회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.

또한,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며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 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제 64회 숭대극회 가을 정기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이번 공연에 수고해 주신 모든 숭대극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숭대극회 동문회 일동



극회장

이세훈(97 전기)

기획의 변

나의 하루

- 오전 9시. 아무 생각없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지.
- 11시. 혼자있는 극회실에서 기타를 치지.
- 11시 30분. 늦게 온 애들을 갈구지.
- 1시. 또 혼자있는 극회실에서 기타를 치지.
- 3시. 극장에 올라가지. 배고프냐 물어보러.
- 5시.
- 6시.
- 7시. 옆에 있는 빅토리와 만담을 나누지.
- 8시.
- 9시. 희진이가 부르지. 오빠 하실 말씀요!
- 9시 30분. 아무 생각없이 술마시러 가지.
- 12시. 집으로 가지. 별 생각없이.



기획
서정우

연출의 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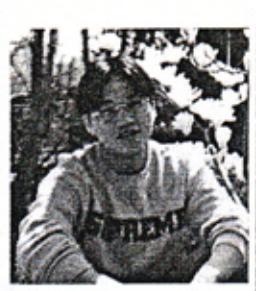


김희진
(99 경영)

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,
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,
지겨운 현실 속에서
'그래, 해보자!'라는
의지가 생겼다는 것.....

'내 든든한 뼈이 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'

staff



무대감독
김귀하(95 건축)



무대장치
김명진(96 전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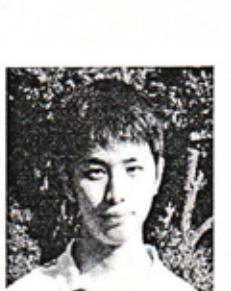
홍보
이세훈(97 전기)



섭외
안병진(97 전자)



조명
오민석(97 전자)



음향
이상혁(01 전자)



소품
차상우(97 기계)



분장
(00 강유미)



의상
이경우(99 국문)



일러스트
윤장한(98 경제)



진행
최연경(98 전자)



진행
김설희(01 법)

작품 해설

- 다른 동화 한 편 -

난 누렁이입니다.

나는 올 주인집 막내아들인 철수가 참 무섭습니다.

철수는 날 매일 괴롭히거든요.

꼬리를 잡아당기고 내 물그릇에다 고춧가루를 풀어놓기도 합니다.

난 매일 밤을 깅낑대며 않았죠. 너무 괴로웠습니다.

어느 날... 철수가 골목 한 쪽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.

난 속으로 만세 삼창을 했죠. '만세! 만세! 만세!'

난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를 잔뜩 세우고 신나게 철수 앞을 지나갔습니다.

철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.

그런데 그 눈은 어디서 많이 보던 눈이었습니다.

철수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내 눈과 닮아있었습니다.

난 철수가 얼마나 아픈지 알았습니다. 나도 그랬으니까요.

난 철수한테 다가가 눈물을 핥아줬죠.

철수는 날 안더니 마구 울었습니다.

그 뒤로 우린 친구가 됐습니다.

어느 날... 철수와 내가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, 철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

'어쩜, 이렇게 똑같이 자고 있느냐?'

하하하!!!

----- 강하, 순덕, 해인, 형우....

그들도, 우리도 그렇게 산다.

상처, 변하지 않는 상황....

그러나 주위를 돌아본다면...

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!

'당신은... 지금 (여전히) 행복할 수 있나요?'

cas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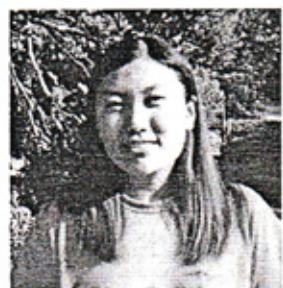
“강하”
 / 한주영(99 경영)
 우연히 마주친 무심하고 먹먹한 눈길...
 시간과 공간이 멈춘 채
 그렇게 머무르네요



“형우”
 / 김종백(99 경제)
 로망스...
 변하지 않는
 사랑의 노래



“순덕”
 / 강혜정(00 독문)
 누군가에게 희생적 사랑을 준 적이 있나요?
 전 있습니다.
 stargaze123@hanmail.net



“해인”
 / 이미나(01 경제)
 사랑은 핑크색이라 바래기 쉽고
 순결은 흰색이라 더러워지기 쉬우나
 우정은 무색이라 영원하다

생고기전문점 승실먹거리	호박꽃 속의 반딧불	청풍원	이태리시장
젝 글사랑	일루와	세원김밥	도시미술 마을나들
미진 토끼	넥스버니	아트하우스	브레드 하우스
green camp	승실상회	거스	이클립스
콘피드	향림원	서브웨이	인터매니아 pc방

승실 풀라워

(경조화환/각종 랜 전문)

02-813-4343



저희 승대극회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.
연극에 관심있고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언제
든지 승대극회로 오시기 바랍니다.

02-820-0958